

개혁 필요한 곳 중량급 정치인·미래 대비엔 전문가 투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강 비서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진용 갖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하면서 1기 내각이 거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

앞서 23일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킨 데 이어 이날 6명을 추가로 지명함에 따라, 19개 행정각부 장관 중 17곳의 자리가 채워졌다. 이날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내각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선은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중량급 정치인을, 미래를 위한 대응과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개혁이든 민생 안정이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초대 내각에 임각한 의원의 면면을 보면 특히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된 부처에 중량급 있는 인사가 배치됐다는 것이 눈에 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나란히 '친명' (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5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초기부터 함께하며 멘토 역할을 하는 등 신뢰가 깊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윤 후보자와 안 후보자는 '원조 친명'인 정 후보자와 달리 정치적 뿌리는 다른 곳에 두고 있지만, 2022년 대선을 전후로 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며 핵심 친명계 인사로 거듭났다.

올해 대선에서 윤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안 후보자는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각각 맡았다.

이들이 맡은 부처는 장관으로서의 상징성을 누리기도 하는 실제로 '메스'를 쥐고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야 하는 곳이다.

정 후보자가 맡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안 후보자가 맡은 행안부 장관은 군 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윤 후보자가 맡은 행안부 역시 검찰개혁과 맞물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

개혁이든 민생이든 속도감 있는 추진 예고

혁에 긴밀하게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한 경찰국 등도 개혁 대상이다.

중량급 있는 인사들에게 개혁의 키를 맡김으로써 "어떤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 밖의 경제·사회 부처 인선에서는 전문가를 중용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이 예산편성 기능의 분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그간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기재부 장관으로도 중량급 있는 정치인이 발탁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단 경제를 서둘러 안정시킬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임무를 맡기겠다는 '실용주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첫 인선에서 LG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임명한 것도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실용주의적 발상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경우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치며 정책통으로 역량을 쌓은 관료 출신이기도 하다.

대학 총장까지 지낸 교육자 출신 이진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역시 전문가가 중용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형훈 차관에 대해서는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치밀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회복과 정상화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기전대 도시계획 조정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보통신 행정 전문가…AI 거버넌스 전반 총괄 '주목'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으로 임명된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방송·통신 등 전통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인공지능(AI) 분야를 두루 섭렵한 행정 전문가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과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ICT 당국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1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으로 AI 발전 초기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을 맡아 행



정 업무에 AI를 이식하는 초석을 놓았다. ICT 당국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네트워크·보안 등 전통적 ICT 분야와 결합한 AI 거버넌스 전반을 총괄할 인물로 주목받았다.

▲고흥(56) ▲광주 서강고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카네기멜런대 석사 ▲행정고시(39회)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

장·차관 후보자 프로필

이재명 대통령 38년지기…검찰개혁 이끌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다.

친명계 좌장인 정 후보는 6·3 조기대선 기간 비공식적으로 호남을 3차례나 방문하는 등 친호남 인사로 분류된다.

폭넓은 법조 인맥으로 사법·검찰 개혁 과정에서 겪을 진통을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얼마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의 38년지기인 정 후보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18기)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정 후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지난 2000



년 정치권에 뛰어 들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기 동두천·양주에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으나 18대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하지만 19대부터 22대까지 내리 당선되면서

협지였던 양주를 민주당 텃밭으로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정 의원은 원조 친명계 그룹인 '7인회' 좌장을 맡았고 친명 인사들 가운데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석에서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사이가 막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양구(63) ▲서울대 법대 ▲17·19·20·21·22대 의원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

광주 출신 … 코로나19 방역 지휘한 '국민 영웅'

정은경 보건복지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자타공인 방역 전문가다.

코로나19 초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 성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외에서 '코로나 전사'를 넘어 '국민 영웅'으로까지 불렸다.

광주 출신의 정 후보자는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자 브리핑을 도맡아 코로나19 현황과 정부의 대응을 전달



하는 역할을 했다.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청장으로 꼬박 4년 10개월 방역 수장 임무를 수행한 뒤 2022년 5월 물러났다.

퇴임 후에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실 임상교수로 임용돼 강단에 섰으며, 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광주(60) ▲서울대 의학과 ▲서울대 예방의학 박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임상교수

기재부 정책통 출신 기업인 … 해외원전 수주 이끌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 사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기업인이다.

김 후보자는 1968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에서 산업관세과·외화자금과·종합정책과 등을 거쳤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세계은행 협조금융 전문가를 맡으며 '정책통'으로서의 면모를 쌓았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 요직을 역임했고,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 자본시장부장관과 국제경제부장 등도 맡았다.

▲장성(57) ▲광주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경제분석과장·자본시장부장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자본시장부장 ▲기재부 부총리 정책보좌실장·정책기획관 ▲두산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사장)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